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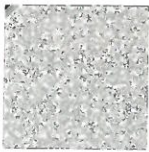


시온 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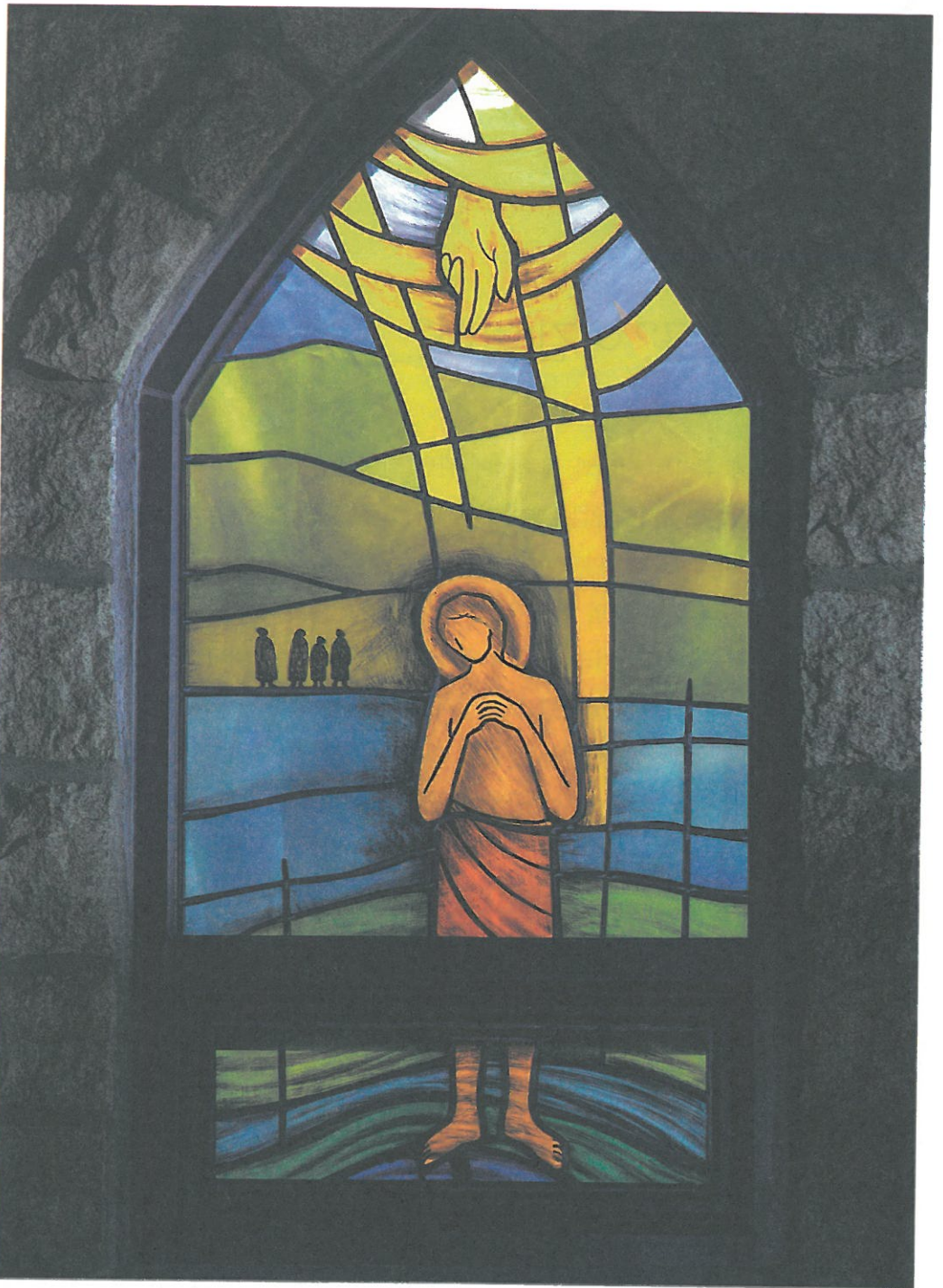
제2376호
2022년 1월 9일(다해)

주님 세례 축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마태 3,16-17 참조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제1독서 | 이사 42,1-4.6-7 <또는 이사 40,1-5.9-11>

화답송 | 시편 29(28),1ㄱ과 2.3ㄱㄷ과 4.3ㄴ과 9ㄷ-10(㉑ 11ㄴ)

-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러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

이어!”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2독서 | 사도 10,34-38 <또는 티토 2,11-14; 3,4-7>

복음환호송 | 마르 9,7 참조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 루카 3,15-16.21-22

영성체송 | 요한 1,32.34 참조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나는 누구? 여긴 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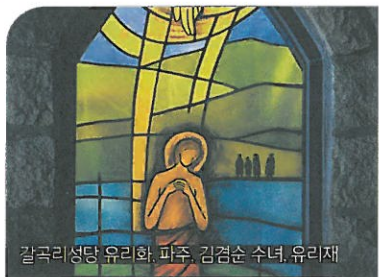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원과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끝날 것처럼 끝나지 않는 팬데믹 상황,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막막함 앞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의 위기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으로 촉발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전 같은 방식의 신앙생활은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신앙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신앙에 관한 근원적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바른 곳을 향해 있었는지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주일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이 축일을 기점으로 성탄 시기가 끝나고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시간이 마무리되고 이제 다시 신앙 안에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세례 축일'은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제1독서(이사 42.1-4.6-7)에서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는 예언이 소개됩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이사 42.1) 구약성경 예언은 신약성경 복음(루카 3.15-16, 21-22)을 통해 완전한 의미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 하

늘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 이사야서의 예언은 루카 복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가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왜 굳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언가 부족해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던 것일까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당신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순종과 겸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세례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도록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신앙인들이 언제나 세례의 순간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용기 내어 신앙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세례 축일'을 보내는 우리는 신앙 여정의 첫걸음인 세례의 순간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던 그 세례의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의 초대에 각자 자발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던져보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신앙인인가?'라는 질문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때 우리를 불러주셨던 삼위일체 하느님께로 다시금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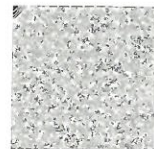
갈곡리성당 유리화, 피주, 김경순 수녀, 유리재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



120년간 공소였던 작은 성당이 순교사적지가 되면서 신부님께서 부임하시고, 썰렁하던 성전에 불이 밝혀집니다.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골 마을은 성당 유리화를 통해 흘러나온 빛으로 온기가 가득합니다. 세례를 받던 날, 텅 빈 가슴에 주님께서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로, 당신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이서원 프란치스코 한국분노관리연구소장

간섭 없는 세상이 천국

3대가 한집에 살며 다툼 한번 없이 평화롭게 사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26년째 상담을 배우고 있는 이근후 선생님 덕입니다. 선생님께 비결을 묻자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서로 간섭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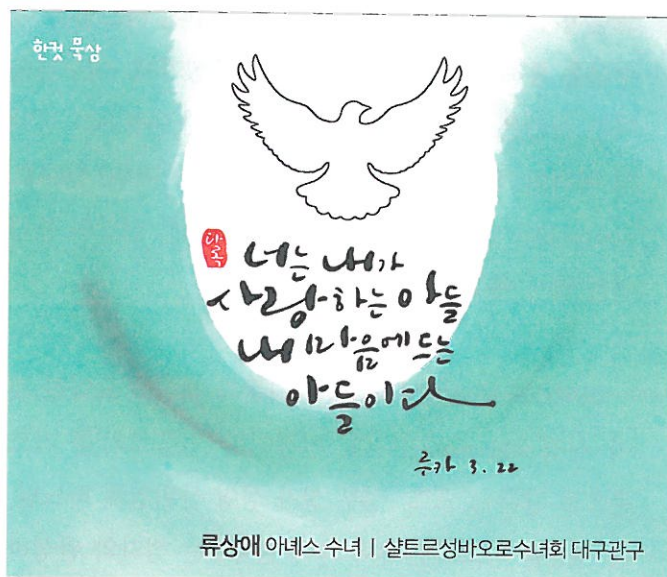
선생님은 처음 자녀들이 집을 짓고, 3대가 모두 함께 모여서 살고 싶다고 했을 때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티의 집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평생 네팔 의료봉사를 해오신 선생님은 히말라야에 산다는 전설의 설인 예티의 이름을 따서 예티의 집이라고 함께 살 집 이름으로 지으시고 지킬 규칙을 현장으로 만드신 거지요. 현장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간섭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 건물에 층을 달리해 같이 사는데, 인터폰으로 서로 연락을 합니다. 이유는 부모라고 시도 때도 없이 문 열고 들어가는 건 되도록 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화를 해서 지금 올라가도 되는가를 물어보고, 좋다고 하면 갑니다. 어디서 과일 한 상자가 선물로 들어와도 올라가는 계단에 두고,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가져갈 만큼 가져가게 합니다. 서로의 생활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면서 간섭을 하지 않은 덕분에 3대는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사이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간섭하지 않기'를 3대 공존의 핵심으로 삼게 된 것은 정신과 의사로서 평생에 걸쳐 경험하며 깨달은 바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문제 가정이 그렇게 된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섭은 침해이며 무례이기에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견딜 수 없어 정신적인 문제로 드러난다는 것을 수없이 확인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간섭은 사실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서 나옵니다. 관심이 없다면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관심과 애정이 있으니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방법

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간섭은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옛날 옹기종기 모여 살던 마을에서 남의 집 손가락 숫자까지 알려고 하던 마음의 습관이 남아, 조금만 누구와 친해지면 속속들이 모든 걸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섭을 시작합니다. 나에게서는 애정의 표현이 상대에게는 참견과 간섭이 되는 것을 모릅니다.

얼마 전 한 여자와 두 번째 결혼을 한 남자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혼했다가 같은 여자와 다시 함께 사는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요즘 새로 결혼한 것 같이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근후 선생님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간섭이 없습니다." 조금만 수가 틀리면 이혼을 다시 해야 하기에 일체 참견이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집이 날마다 천국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이근후 선생님과 이 부부를 보며 간섭 없는 집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면 간섭부터 없앨 일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2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요약 = 신경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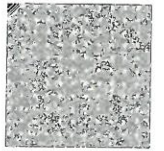
하느님은 인간과 세상을 초월해 존재하시기에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스스로 깨닫거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계시'(啓示, Revelatio)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계시란 '하느님께서 당신에 대해 알려주신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계시의 대표적 형태가 바로 신·구약 '성경'과 교회의 전통 내지 전승이라 하는 '성전'(聖傳, Traditio)입니다.

하느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초기 교회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체험한 후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말씀(=로고스)이 사람이 되신 분'(요한 1,14)이라 고백합니다. 즉 나자렛 출신 예수님이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고, (요한 1,1)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하셨던 말씀이며,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요한 1,3)고 고백하는 참하느님이자 참인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확실하게 알려주셨기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느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 14,7) 신앙의 목적이 '하느님을 직접 마주 뵈는 것'(지복직관 至福直觀, visio beatifica, 1코린 13,12; 1요한 3,2 참조)이라면, 신앙의 중심 인물 역시 예수님으로 귀결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기준과 핵심을 요약한 것이 '신경'(信經 credo)입니다. 신경이란 '믿음교리'를 기도문으로 만든 것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 즉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와 구원하시는 성자와 완성하

시는 성령에 대해 고백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창조주 하느님만 분명하게 계시됐지만, 이후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목격한 후 신약의 교회는 성자의 신성을 고백했고, 이후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 성령의 신성도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신앙고백을 정리한 것이 신경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있습니다. 전자는 가장 오래된 신경이자 서방교회의 대표적 신경으로, 사도들의 신앙을 충실히 담고 있으며, '가장 오래된 로마 교리서'라 합니다. 후자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두 보편공의회(325년, 381년)에서 정립된 신앙고백을 담은 신경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94-196항 참조) 신경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인간 구원 계획을 강조하고, 동시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오로는 '믿음'을 '피스티스'(πίστις pistis)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주관적으로 확실하나, 객관적 근거는 미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의 존재, 예수님의 부활 등은 객관적으로 확증할 수 없지만, 믿는 이는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특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이란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하느님 말씀=복음=진리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을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사는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지 못하는 인생과 죽음 등을 하느님 은총에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의인 노아가 알코올 의존증?



허영엽 마티아 신부 |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평소에는 말도 없고 점잖은데 술만 마시면 집안 물건을 두드려 부수는 중년 가장이 있었습니다. 송년 모임에서 열큰하게 취해 비틀대며 밤늦게 집에 들어온 그 남자는 갑자기 망치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마구 부숩버리고 방으로 돌아와 쿵쿵 잠에 폴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정신을 차려 일어났더니, 아뿔싸! 자신이 전날 밤 부순 차는 자신의 차가 아닌 이웃의 고급 차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과거에 우리 사회는 술 문제에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저 사람 술만 빼면 참 괜찮고 좋은 사람인데... 술이 원수야.” 그리고 술에 만취해 실수를 한 사람도 다음날이 되면 멀쩡해지니 가족들은 물론 본인도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이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술주정을 한다고 해서 모두 알코올 의존증(중독)이라 선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알코올 의존증이라면 이를 개인의 의지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질병(疾病)이란 것을 분명하게 알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계속 술을 마시면 대뇌피질의 문제를 일으켜서 기억 장치에 문제가 생기고 알코올성 치매, 블랙아웃 등으로 이어집니다. 무서운 것은 간에서 해독·분해되지 않은 알코올 독성이 혈액을 타고 뇌에 가서 직접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전두엽의 흥분, 분노, 호르몬 대사 이상으로 점점 폭력성을 띠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잔 반 정도가 간에서 해독이 되려면 3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알코올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은 노아입니다. (창세 6,5-9,29 참조) 대홍수가 끝난 후 노아는 산기슭을 개척하여 포도밭을 일굽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장막 안에 들어갔다 아연실색합니다.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옷을 다 훌훌 벗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상상해보십시오.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 마루에 나체로 벌렁 누워있다면 어떨까요? 생각하기조차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하느님은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하셨지만, 노아만은 살려둘 정도로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죄를 짓지 않고 흠 없이 살며 하느님의 은혜를 받은 인물이었지만, 이미 자신의 가족들에게 수차례 술주정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느님에게도 인정받은 의인 노아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술에 취해 옷을 벗는 행위는 그의 무의식을 나타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한 인간이지만 의인으로 평생 살아가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긴장감이 풀리고 교만해졌을까요? 그 이유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노아의 음주 후 이어진 기이한 행동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분명합니다. 대개 알코올 의존성에 빠지게 된 사람들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그들의 가족입니다. 술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절제 있게 마시면 술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지만(집회 31,27) 절제를 잃으면 인간은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진출처: 음악의 역사 (음악사 대도감)

음악칼럼

세례로부터 시작된 신앙생활, 새로운 다짐과 함께 '알렐루야!'

모차르트, 모테트 <기뻐하라, 환호하라, 복된 영혼이여> 중 '알렐루야'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심의위원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언제부터인지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어서 태어날 때부터였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친구 따라 주일학교에 가던 때부터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성인이 되어 신앙을 갖는 분도 많죠. 제 경우엔 가톨릭 신자이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결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예비자 교리반에 등록하면서 '이제 나는 가톨릭에 발을 들여놓는구나.' 싶었고, 세례를 받으면서는 '이제 본격적인 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주님 세례 축일을 맞아 세례성사로부터 시작된 제 신앙생활의 출발점을 되새겨 봅니다. 교회 연중시기의 시작이 새해의 시작과 비슷한 시점이니만큼, 바로 지금쯤 우리 신앙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 일상의 계획과 더불어 신앙생활의 계획도 세워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되도록 기쁘고 힘차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큰 소리로 주님 찬양을 외쳐보고도 싶습니다. 이런 마음에 딱 어울릴만한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모차르트의 모테트 <기뻐하라, 환호하라, 복된 영혼이여(Exsultate, Jubilate)> 작품번호 165(K.165) 중 '알렐루야(Alleluia)'입니다.


독창자인 소프라노가 한껏 고양되어 기쁨에 차서 노래하는 이 곡은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오스트리아)가 1773년 1월 자신의 오페라 <루치오 실라(Lucio Silla)>를 공연하기 위해 머물던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당시 오페라의 주인공을 맡은 카스트라토 가수 베난치오 라우치니(Venanzio Rauzzini)를 위해 작곡한 음악입니다. 네 곡으로 이루어진 모테트 <기뻐하라, 환호하라, 복된 영혼이여(Exsultate, Jubilate)> 작품번호 165(K.165)의 마지막 수록곡이죠. '모테트(Motet)'는 13세기에 만들어진 종교 성악곡으로, 18세기 바로크 후기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다성 음악으로 구성된 짧은 종교 합창곡을 말합니다. 모차르트의 이 모테트는 첫 곡 '기뻐하라, 환호하라, 복된 영혼이여', 둘째 곡 '친숙한 날이 밝아오며', 셋째 곡 '처녀들의 왕관인 당신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네', 그리고 마지막 곡 '알렐루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느님께서 세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올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이 모차르트의 곡처럼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서 주님을 찬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뻐하라, 환호하라, 복된 영혼이여
 (Exsultate, Jubilate)> 작품번호 165 (K.165)
 중 '알렐루야(Allelu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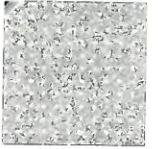


모차르트(W. A. Mozart) : <기뻐하라, 환호하라, 복된 영혼이여
 (Exsultate, Jubilate)> 중 '알렐루야(Alleluia)'
 소프라노: 크리스티네 셰퍼(Christine Schäfer) · 지휘: 베르나르
 트 하이팅크(Bernard Haitink),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Berliner
 Philharmoniker) / 1999년 5월 1일, 폴란드 크라쿠프, 성마리아대성
 당(St. Mary's Basilica)에서 진행된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의 유
 로피안 콘서트에서 녹음


 음악 감상 : 모테트 <기뻐하라, 환호하라, 복
 된 영혼이여(Exsultate, Jubilate)> 작품번호
 165(K.165) 전곡



모차르트(W. A. Mozart) : <기뻐하라, 환호하라, 복된
 영혼이여(Exsultate, Jubilate)>-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위한 모테트, 작품번호 165 (1773년판). 에마 커크비(Emma Kirkby)
 와 고대 음악 아카데미(Academy of Ancient Music), 고악기(period
 instruments)로 연주, 크리스토퍼 호그우드 지휘



어떤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나요?

김광현 안드레아 |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어떤 자리에서 세례성사를 받으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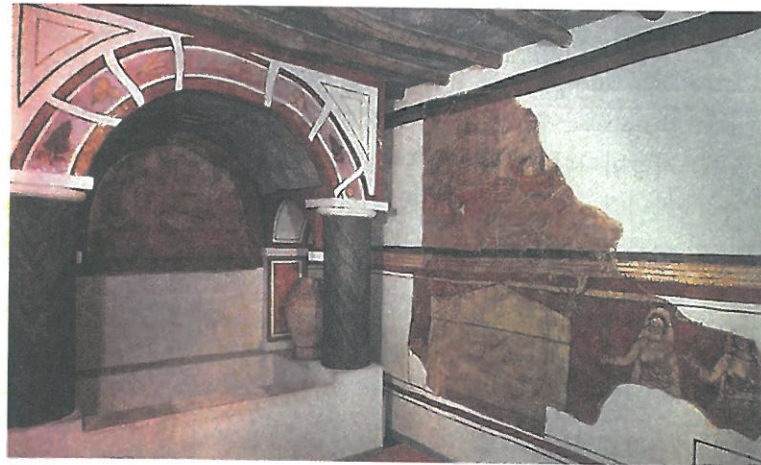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요르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를 본받아 강이나 샘 등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에 몸을 담그게 해 세례를 주었습니다. 흐르는 물은 죄에서 벗어나 다시 사는 생명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것이 2세기에는 도시의 주택을 성당으로 사용했고,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숨어서 예배를 드렸으므로 건물 안에서 세례반에 몸을 담그게 해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는 자리에는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많은 어른 세례 지원자에게 세례성사를 거행하기 위해 따로 마련된 건물이나 성당의 한 부분을 세례당(堂) 또는 세례소(所)라고 합니다.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을 상징해 땅 밑으로 바닥을 낮추어 세례를 주는 곳은 세례반(盤)이고, 편리한 높이의 받침대에 세례수를 담은 그릇을 올려놓은 것은 세례대(臺)입니다. 세례반이나 세례대는 돌로 만들어졌고, 그 안은 금속을 덮은 다음 뚜껑을 잘 덮어 자물쇠를 채워놓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비교적 큰 세례반에는 침수 세례를 위해 물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과 물에서 나오는 계단이 붙어 있는데, 이는 각각 죽음과 부활을 나타냅니다. 세례반은 사방 2m이고,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이 서 있으면 넓적다리까지 잠기고, 무릎을 꿇고 앉으면 가슴까지 잠기도록 바닥이 70cm 정도 내려가 있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세례소는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 시리아의 두라에우로포스(Dura-Europos)에 위치한 232년쯤 개인 주택을 성당으로 바꾼 '주택 교회'에 있습니다. 50~70명이 모이는 작은 성당인데도 작은 세례소가 따로 마련되었고, 계다가 세례반 위 천장에는



두라에우로포스 '주택 교회' 세례소 복원도

푸른 하늘과 별이, 벽에는 '선한 목자' 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7세기 무렵 유럽에는 그리스도교가 널리 퍼지자 어른 영세자가 줄어들어 독립한 건물인 세례당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어린이 세례가 일반화되면서 세례반도 어린이 한 명이 담길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여기에 받침대를 둔 세례대가 생겨 어린이는 세례대 위로 들어 올려 물을 부었고, 어른은 세례대 위로 허리를 굽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당에는 세례당도 없고 세례반, 세례대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한정된 면적에 일 년에 몇 차례 사용하지 않는데 자리를 많이 차지하여 실용적이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의 물을 지나 제대에 이르는 구원의 여정을 생각하면, 성당에서 세례대와 제대는 같은 축 위에 놓여야 합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샘 모양의 세례대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떻게든 새로운 모습의 세례대나 세례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1월 9일)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1월 18일(화)~25일(화)은 그리스도인 일치를 간구하는 일치 주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미사 후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www.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묘원 성묘 안내

1) 용인추모공원 설 성묘 안내 / 미사: 1월 30일(주일) 10시
 성묘 승차권을 묘지관리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전화예약(02)727-2225) 후 송금하셔야 자리배정이 가능합니다. 관리비가 미납되신 분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장기 미납시에는 무연고 처리됩니다. 식사 및 성묘 개별준비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묘원 경당(김수환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차량 도착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요망

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승차권 예매: 1월 3일(월)부터 선착순 자리배정(1매 2만원-좌석 띄어앉기로 인한 조기마감 및 차량비 변동 가능)

마스크 미착용 시 차량 탑승 및 경당 출입이 제한됩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고 현장으로 오시는 분은 미사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미사 참례 인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은 참례 인원 제한에 따라 참례하실 수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454-003267-13-159 (재)천주교서울대교구
 문의: 02)727-2225 묘지관리과

2) 천주교 비봉추모관 설 성묘 안내

미사: 1월 30일(주일)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1층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및 도림동성당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미사 참례, 봉안당 출입이 제한됩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고 현장으로 오시는 분은 미사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미사 참례 인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은 참례 인원 제한에 따라 참례하실 수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사관련 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2년 1월 13일 서상필 요아킴 신부(31세)
- 1998년 1월 14일 전용선 요한 신부(52세)

교구청알림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정영주 이론전: 1전시실
 임선미·김경화 '웃칠화전': 2전시실
 전시일정: 1월12일(수)~17일(월)
 예수성심프로젝트: 3전시실
 전시일정: 1월5일(수)~17일(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녘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02차 미사 1월1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장련 본당, 매화동 본당 / 문의: 02)727-2420
 유튜브로 실시간 미사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튜브) 앱 실행 → '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2-1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서울대교구 신자 /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 참조
 교육기간: 2월9일~7월6일 매주(수) / 20주 과정
 교육장소: 가톨릭회관(명동)
 신청기한: 1월28일(금)까지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2년 상반기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상담,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온라인 수업)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pc@seoul.catholic.kr)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2022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상반기 교회음악자격증 과정 모집

서울대교구장 인준의 전문(초·중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콘서트바토리 과정)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원서접수: 1월10일(월)~21일(금)
 접수방법: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의 요망
 문의: 02)393-2213~5(http://www.casm.site) 성음악위원회

개강일정	3월 개강
교육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일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학기운영	3학기 과정 / 직장인을 위한 주중 저녁 / 주말반 운영
입시일정	원서접수 → 면접전형(실기) → 합격자발표 → 등록

직장인 금요미사 안내


때, 곳: 매주(금) 12시15분, 문화관 2층 소성당(명동)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2022년 명동대성당 하반기 혼인 예약 안내

7월~12월: 1월14일(금) 14시, 대성당
 (오후 1시 대성당 입구에서 추첨 순서번호표를 나눠드립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마지막 순서로 배정됩니다)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74-1784
 추첨 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seoul_jubo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QR

인준단체 알림

모임

살레시오 수도회 성소상담 / 문의: 010-2042-8353
대상: 중·고생, 일반 35세 이하 미혼 남성 / 심재현 신부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성모님과 함께하는 직장인 체나콜로

때, 곳: 매주(월) 19시, 가톨릭회관 325호
문의: 010-3270-8360 서지영

2022년 수원교구 영성교육원 Lectio Divina 피정

강사: 이영근 수사(양주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때, 곳: 2월18일(금)~19일(토), 수원교구 영성교육원
회비: 8만원 / 문의: 031)321-9060, 010-9371-7018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월14일~17일·2월25일~28일·3월11일~14일
·3월25일~28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눈꽃산행 피정: 1월21일~23일, 1월28일~30일, 2월6일~9일, 2월12일~14일, 2월19일~22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 이사들 자연 순례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쉽'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분당 단체 구반장
때: 3월6일~8일, 3월17일~19일, 3월26일~28일,
3월30일~4월1일, 4월4일~6일, 4월10일~12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청년들을 위한 개인 피정(상지 피정의 집)

1박2일	외판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문의:
2박3일	와서 빵을 먹어라	010-8191-0377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성경 완독	2월11일(금)~19일(토)	곳: 도미니코
말씀 피정	2월24일(목)~27일(일)	피정의집(주최, 황성)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98차	1월28일(금)~2월5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99차	2월18일(금)~26일(토)	
제100차	3월18일(금)~26일(토)	

교육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새천년복음화학교 146기 1단계 개강

때: 1월25일(화) 오후 2시 / 회비: 7만원
수강문의: 02)753-8765, 02)2096-0410-0411

서울대학교 전례꽃꽂이 연구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때, 곳: 3월 봄학기 개강부터 매주(목) 15주, 가톨릭회관 / 문의: 010-9590-4560, 010-5236-5493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학생 모집

대상: 초5~고1 /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기간: 단기 1년 또는 장기 / 백신 접종 가능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월11일(화)~2월9일(금) / 인원: 20명
대상: 상호문화교육 희망자 및 이주배경 청소년
전형 일정 학교 홈페이지 참조 / 문의: 061)432-9241

음악심리상담사 자격교육

때, 곳: 2월5일~19일 주말반 매주(토) 14시~17시
·2월3일~17일 매주(목) 14시~17시,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음악심리상담사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선교아카데미 제11기 교육생 모집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 회비: 80만원(식대 포함)
때, 곳: 3월3일~9월29일 매주(목), 한국외방선교회 본부(성북동) / 문의: 02)3673-2528

2022년 불학기 성심 임상사목교육(CPE)

비대면 화상 교육 / 대상: 영적돌봄에 관심 있는 교우
회비: 80만원, 코로나 장학금 / 문의: 010-2883-5501

수요일반	2월9일~5월25일 9시~17시(16주)	8명
토요일반	2월5일~6월4일 9시~17시(16주)	선착순

장례지도사(봉사자·국가자격취득) 교육생 모집

곳: 의정부교구청 내 신앙교육원 / 팩스: 031)837-0144
카페(<http://cafe.daum.net/sangjang2014>) 손담게시판 참조
문의: 031)874-6272 연령회연합회·상장례학교

봉사자반	3월19일~6월4일 매주(토) 9시~18시	40명
자격증반	3월19일~11월12일 매주(토) 9시~18시	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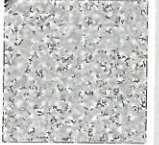
성경속에서 나를 만나다(전교가르셀 수녀회)

대상: 여성 신자 / 비대면 총 7회
회비: 5만원 / 문의: 010-2037-9262

첫째 셋째주(화)	2월15일부터 10시~11시30분
둘째 넷째주(화)	2월8일부터 20시~21시30분
첫째 셋째주(목)	2월3일부터 21시~22시30분 / 미혼

암환우를 위한 특별 피정 교육

접수: 1월10일~14일
1월부터 교육실시 합니다
때, 곳: 1월17일~22일, 성모꽃마을(주최) / 문의: 043)211-2113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때: 3월~12월 /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7.5%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 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터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uus.pauline.or.kr> / 1월31일까지 접수
문의: 02)944-0819~24, 010-5584-8945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2차 신·편입생 모집

문화영성학(석사학위과정) / 전공: 문화영성, 사목영성
접수: 1월10일(월)까지 / 면접: 1월21일(금) 예정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반포)
문의: 02)2258-7814(<http://gcs.catholic.ac.kr>)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교육과정 신입생 모집

대상: 가톨릭교회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내용: 가톨릭신학 26과목을 통신(우편)으로 공부
접수: 2월9일(수)까지 우편접수 가능

예수회 이나시오영성연구소 프로그램

내용: 영성, 교리, 신학적 기초와 심화학습, 수행으로 초대
담당: 권희섭 신부 / 홈페이지: <http://inogopress.kr>
때: 2월8일(개강 예정)부터 매주(화) 14시~16시
곳: 비대면 온라인 / 1월28일(금) 16시까지 선착순 접수
문의: 02)3276-7799 (월~금) 10시30분~16시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선교사(교리교사) 자격 수여
접수: 1월18일(화)까지 / ci.catholic.ac.kr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교리교육 학과	주 5일 주간(2년)	세계 3년 남은 견진자 입회 2년 남은 수도자
종교교육 학과	주 4일 야간(2년)	타 대학에 적이 없고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신학심화 과정	주 3일 주간(1년)	본원 교리·종교학과 준한 과정 이수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예수회센터 프로그램(3월 개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일상생활 안에 서의 영신수련	18주 과정	매주(목) 14시~16시	이창현 신부
	30주 과정	매주(월) 10시~12시	김정욱 신부
그리스도교와 불교 간의 대화		매주(화) 14시~16시	서명원 신부
실시간 Zoom 강좌	영어성경 나눔- Mark's Gospel Chapters 6-16	매주(목) 18시~ 19시 반, 19시30 분~20시30분 반	Kister 신부
	영성과 철학상담-이론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매주(화) 19시~21시	박병준 신부 홍경사교수

김대건 안드레아 성서 아카데미(율기)

주제: 율기 / 강사: 가톨릭대학교 교수
대상: 신자 및 성서에 관심 있는 분(선착순-백신접종 완료자도 방역지침상 허용 인원) / 회비: 4만원(교재비 포함)
때: 2월3일~4월28일 매주(목) 11시~12시30분(13회)
곳: 반포4동성당 대성전 / 1월22일(토)까지 직접 방문 접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의: 02)3482-2255 반포4동성당 사무실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치료, 개인(우울·공황·분노·강박) 종합심리검사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효도, 단체관광,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품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전·진·상 영성센터

곳: 명동 / 문의: 02)726-0700, 0701
1) 2022년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상: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사회생활 새내기 여성 / www.jiscen.or.kr 게시판 참조
2) 수지에니어그램-자기 본질 찾기 및 자기인식을 위한 교육
때: 매월 셋째주(금·토) 오전 10시~오후 5시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패 신청

추모패·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명절, 위령의날, 매일 합동 위령미사, 생미사 봉헌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문의 / 문의: 02)2021-2700

유관단체 알림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명동) 501호
개인 상담	정서 및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및 심한 우울과 불안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교육	매체(모래·미술) 상담사자격과정-1월22일~2월19일(토) 10시~15시(5주)

직업모집

전진상의원 간호사 모집 / 문의: 02)802-9311
호스피스 병동 3교대 간호사, 나이트 간호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사무원 모집

분야: 입양사무 및 홍보 담당 1명(계약직)
대상: 사회복지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
접수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모집 공고 참조 / 문의: 02)764-4741~3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경찰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분야: 홍보·사업기획, 운영 / 1년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견진성사 받은 초대졸자, 디자인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연간 프로젝트 경험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1월23일(일)까지 이메일(catholicpolice1@seoul.catholic.kr) 접수, 이후 면접 / 문의: 02)742-9473

수서동성당 사무장 모집

분야: 사무장 1명(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5년 이상된 교우로 사무행정, 회계업무 및 PC 가능한 분 / 문의: 02)2226-0231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에 서 다운),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월20일까지 우편(우 06352,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199) 접수 /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통보)

이주사목위원회 산하 이주노동자상담실 상담직원 모집

이주노동자상담실 상담직원 모집(1명 신임, 정규직)
영어권 이주민 상담 및 상담실 실무-외국어능력(영어) 우대 / 서류: 이력서(사진 첨부),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교적 사본, 자격증
1월21일까지 이메일(migrant@catholic.or.kr) 및 우편(우 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95, 4층 노동사목회관) 접수 / 1차 서류 전형, 면접 개별 통보
문의: 02)924-9970, 1 담당자 최정희(이주사목위원회)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모집

수락산성당 청년성가대 반주자 모집

때: (일) 18시(청년미사) / 문의: 02)934-0081 사무실

도미니칸 평신도회 회원 모집(재속회)

대상: 견진성사를 받은 만 60세 이하 성인 남녀
문의: 010-2266-5866 성소 담당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정기단원 모집

오디션: 1월14일(금), 국악성가연구소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자유곡 1곡 / 010-3733-6526
연습: 매주(금) 19시~21시30분 / 지도: 강수근 신부

창5동성당 교종미사 지휘자 모집

대상: 성당 성가대 지휘 유경험자
서류: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1월28일(금)까지 방문 및 우편 접수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및 지도신부 면담
문의: 010-3759-7288, 02)990-5684

2022년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모집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시는 견진 받은 16세 이상 교우
지원서 교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308호
2월28일까지 접수 / 문의: 02)779-3881(근무일: 토·일·월), 010-9600-6358 작은형제회, 02)793-2070 폰벤투알, 010-7261-8233 카푸친, 010-4171-0898 청년회(만 35세 미만)

미사

살레시오와 꿈 월레미사

지도: 심재현 신부 / 문의: 02)828-3500
때, 곳: 1월10일(월) 10시, 가톨릭회관 2층(205-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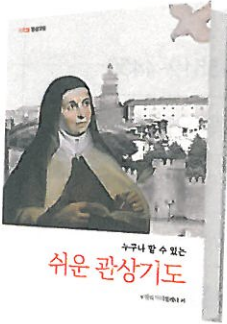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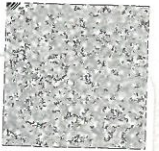
인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일 둘째주(토) 15시~(일)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1월22일(토) 14시	수도원	010-4241-1210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1월16일(일) 14시~16시	본원(미아리)·Zoom	010-9816-0072(pddm.or.kr)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회	2월6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관상기도**

구원의마리헬레나 지음
기쁜소식 | 284쪽 | 1만5천원
문의: 02)762-1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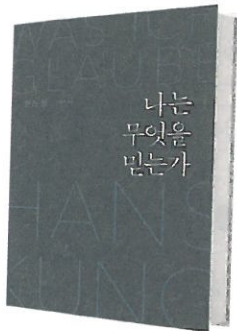
기도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하여 관상기도, 분심 없는 기도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기도 안내서다. 저자는 누구와 '관계'를 맺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낯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음에 공감하며 기도의 기초부터 설명해 준다.



신간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하여**

안셀름 그륀 지음
성서와함께 | 124쪽 | 1만원
문의: 02)822-0125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고 늙어간다. 그런데 '나이 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가지각색이다. 저자는 영적 동반의 원칙과 목적에 대한 일반론에서 시작하여, 노인을 영적으로 동반하는 데 기준과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이어서 구체적인 동반 방법들을 제시한다.



신간
나는 무엇을 믿는가

한스 킹 지음
분도출판사 | 384쪽 | 2만8천원
문의: 02)2266-3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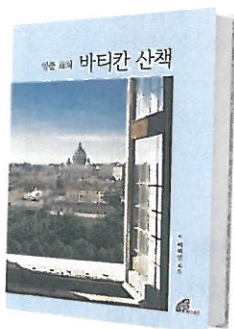
우리 시대의 보편적 사상이 중 한 명으로 존중받고 있는 한스 킹의 신학적 세계관이 오롯이 담겨 있다. 자신의 삶의 과정 속에서 깨달은 바를 전하고, 다른 종교와 비교 분석을 통해 자신이 믿고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알려 준다.



신간
마음 돌보는 동반

안셀름 그륀 지음
생활성서사 | 288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위기에 빠진 이들,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이들과 그들 곁에서 동반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다. 위기에 빠진 이들에게는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희망을, 그들과 동반하는 이들에게는 배려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위기를 삶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 준다.



신간
**영클 죠의
바티칸 산책**

이백만 지음
바오로딸 | 196쪽 | 1만3천원
문의: 02)944-0944

주교황청 대사로 파견 받은 순간부터 임기를 마치고 프란치스코 교황께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까지의 나흘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진면목을 발견한 소중한 순간, 역사의 현장이자 순교의 도시 로마에서 걸어 올린 단상, 대사로써 경험한 감동적인 순간들, 교황청의 외교 활동 등을 생동감 있게 담았다.



신간
사랑이 밥 먹여준다

김하중 지음
마음산책 | 256쪽 | 1만5천원
문의: 02)362-1452

'푸른 눈의 산타'라고 불리는 김하중 신부. 노숙인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일깨워주고 싶어 하는 김하중 신부는 올해로 29년째 매일 앞치마 끈을 묶으며 길 위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런 김하중 신부의 삶과 고백을 다룬 산문집이 출간됐다.

제2211(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비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1월 9일(주일) 중고등부·반대주일학교 미사는 복사단 졸업식으로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 1월 18일(화) 오전 10시

◎ 설날 합동위령미사 안내

2월 1일(화) 설날	오전 6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9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11시 (합동위령미사)
2월 2일(수)	오전 6시 (주님봉헌축일미사)
	오전 10시(주님봉헌축일미사)

※ 설날 당일 합동위령미사에는 연도 및 분향이 있습니다.

※ 설날합동위령미사신청은 1월 30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 오전 6시미사 (미사후에 연도 바칩니다.)
 오전 9시/11시미사 (미사전에 연도 바칩니다.)

◎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수)은 주님봉헌축일로 1년 동안 전례에 사용하는 초를 축복합니다.
 매 미사 중에 초 축복 예식이 있습니다.

	제대초 봉헌	가정초 접수
1자루	8,000원	3,200원
신청	성당 사무실	성물방

※접수마감 : 1월 30일(주일)

◎ 청년단체 이레밴드 단원 모집

모집파트 : 보컬, 피아노, 베이스, 드럼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3시
 미사봉헌 : 매월 마지막주 주일 오후 6시
 문의 : 단장 박균영 사도요한 (010-2829-3856)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문의 : 단장 전소람 미카엘라 (010-3160-2988)

◎ 청년성서모임 새암성서 그룹원 모집

새암성서와 함께 소그룹 성경나눔하실 청년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주제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개강 : 1월 23일 (모집마감 1월 18일)
 문의 : 대표봉사자 정종현 사도요한 (010-3223-5747)

◎ 구역활성화를 위해 여성구역회에서 떡국떡과 만두를 판매합니다.

일시 : 1월 22일(토) 오후 3시~23일(주일)

가격 : 떡국떡 10,000원 / 1.8kg

만두(김치, 고기) 13,000원

◎ 오늘은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1. 2)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86	183 (8.8%)	67 (3.2%)	43.7%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책정한 세대는 2021년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 후 2021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누 계 3,977,000원

◎ 연령회 감사헌금

고 최무학 루시아 상가 오십만원

◎ 감사헌금 (12월 27일~1월 2일)

박명순 일십만원 노덕연 일십만원
 정수진 일십사만원 정남숙 오십만원
 박시현 일백만원 이병규 일십만원
 윤영자 일십만원 한숙희 오만원
 조현화 오십만원 이대행 일십만원
 김재균 오만원 김현수 오만원
 김수진 오만원 익 명 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주님 공헌 대축일)

교무금 29,086,000원

성모마리아대축일헌금 3,117,000원

주일헌금 4,461,10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 1,920,000원